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0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2. 거룩한 주님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10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은 드높고, 단풍은 물들어가고, 논밭의 곡식은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가을하늘처럼 넓고 맑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간됨도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논밭의 곡식처럼 깊은 맛을 내며 영글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가을에 참다운 우리의 모습을 되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지만 참된 깨달음과 지혜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저것으로 머릿속만 채우려할 뿐, 텅 빈 가슴으로 헛헛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진리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워주십시오. 참된 기쁨과 보람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4:27 인도자

♠ 교 독 문 69. 이사야40장(2)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안 훈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99(통418). 하나님 사랑은 다함께

성경봉독 I. 시73:1-28 박아름 선생

..... II. 눅22:63-65 김진경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나의 전부 손성현전도사

..... II. 함부로 대하지 말라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다함께

찬 송 413(통470). 내 평생에 가는 길 다함께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지극히 작은이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대하십시오.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존재입니다.

다함께 : 아멘. 나의 생각과 기준을 절대화하며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지금 내가 정죄하는 이가 메시아일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선부른 판단과 정죄의 말을 거두어들이고 이해와 섬김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청파교회 100년의 이야기 / 김재흥 윤미경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이승철 학생 한상의 장로	최보미 학생 문홍일 집사

10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전총길 안정숙 허정윤 최영혜
	헌금위원	방문성 강순배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어린이로 돌아가라

우리네 인생은 약함에서 또 하나의 약함으로 이어지는 신비로운 구석이 있다. 인생은 갓난아기의 약함에서 늙은이의 약함으로 이어진다. 피로감, 질병, 사고 등은 일상다반사다. 약함을 겪지 않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약함은 혼돈과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만약 자신에게 찾아온 약함을 잘 받아들이고, 그 약함이 들려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맙게 여기게 된다면 그 약함은 평화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약함을 경험하게 되면 화를 낸다. 그들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쉽게 짜증을 낸다. 약함은 그들 안에 있던 완고함과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소유욕을 자극하여 약자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한다. 그러나 약함은 약자들을 향한 연민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도 한다. 그런 연민을 통해 우리는 약자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약함이 삶의 한 부분임을 부정하는 이유는 죽음을 부정하는 이유와 같다. 약함은 절대적 무력함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무력함은 작아짐, 약해짐, 죽어감, 죽음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삶에 반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약함을 부정한다.

만약 약함과 죽음을 부정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파워풀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자기 존재의 한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약함과 강함이 갈마들어 있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에 각자의 강점과 약점으로 서로를 보완해가며 함께 엮어져가는 것이다. 참된 소속감과 친교는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용납할 때 일어난다.

약함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의지할 곳을 찾으려 터뜨리는 울음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만든다. 약한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서 사랑의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약한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강한 사람들이 자신과 약자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거나, 어느 날 자신도 그들처럼 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인정과 사랑을 바라며 울부짖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소속감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끔찍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관계에는 환한 빛이 찾아들고 행복감이 넘치는 시간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불러일으킨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함께함의 기쁨과 주고받음의 기쁨을 발견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런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둠과 침체의 시간도 있다. 모든 이들 속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 어두운 면들은 화냄, 좌절, 혹은 침체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런 어두운 면들로 인해 서로에게 소속되기를 거절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소속감이 자유를 깨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소속감은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부모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며 더 커지는 체험을 한다. 부모들은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하고, 열린 마음을 갖추어야 하며, 아기에게 자기 자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소속감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는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소속감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것이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안다. 아기들의 몸, 성장, 영양분, 언어, 안전은 아기가 부모에게 속해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들이다. 아기는 소속감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소속감은 사랑의 학교다. 소속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주변 세계에 오픈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모든 사람과 피조물,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귀중하며 존경해야 하는 것임을 배우게 된다.

고독의 상태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진정한 인간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한 가치들은 상호 의존 속에서, 약함 속에서, 소속감을 통한 배움 속에서만 알 수 있다. - 장 바니에, 『인간 되기』 중에서

슬픈 도시락

이영춘

춘천시 남면 발산중학교 1학년 1반 류창수
고슴도치같이 머리카락 하늘로 치솟은 아이
빠드렁 이빨, 그래서 더욱 천진하게만 보이는 아이.
점심시간이면 아이는 늘 혼자가 된다.
혼자 먹는 도시락,
내가 살짝 도둑질하듯 그의 도시락 속을 들여다볼 때면
그는 씩- 웃는다
웃음 속에서 묻어나는 쓸쓸함.
어머니 없는 그 아이는 자기가 만든 반찬과 밥이 부끄러워
도시락 속으로 숨고 싶은 것이다.
도시락 속에 숨어서 울고 싶은 것이다.
'어른들은 왜 싸우고 헤어지고 만나는 것이지?'
각두기 조각 같은 슬픔이 그의 도시락 속에서
빼꼼히 세상을 내다보고 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곽상준	최경미	권미숙	김순복	전영웅	김신옥	김정길	최숙화	김희진
박홍재	박규석	박경선	배삼순	권호진	서원금	안종일	정현주	이한림
김명희	임고운	조관행	홍선희	오진훈	노순옥	김성한	조영순	이재문
홍복선	김종락	박영신	김정애	김수진	전세종	김정민	강순배	배제선
김혜영	권채영	김재흥	최희영					

월정헌금:

고속이	김종문	지명주	문금석	왕수영	이동천	이봉배	이은자	정두리
하현철	최성애	정현숙	최윤희	임영	정경례	전영자	김현주	박인혁
김명순	이교영	정현희	유상진	유은정	이재훈	배영선	김시영	유은정

감사헌금:

허호범	박성실	신현찬	문복순	김순복	이정은	오정숙	전성오	전세종
김정민	김시영	김대규	박범희	박미영	한훈식	권채영	정두리	방문성
박혜경	양성모	곽새롬	무명5					

생일감사헌금:

신영신 최숙화

녹색꿈 헌금:

정두리 최경미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송임회	쉼
베들레헬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차혜심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오정숙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희우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윤정화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현숙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동교회로 모입니다.
2. 수요일집회 : 10월 수요일집회는 '청파교회 100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김재흥 목사가 인도합니다.
3. 속장인도자 나들이 : 15일(금) 남이섬으로 속장인도자 나들이를 갑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 신앙실천 : 독서하기에 좋은 계절이기도하지만 운동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마음공부와 더불어 몸공부도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다음 주 : 안디옥 속)

* 설거지 봉사 : 전충길 남창모 김세진 (다음 주 : 최경미 이수정 최재욱)

* 새교우 : 남은총 (8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일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